

세계정당인들과 함께 국민운동으로 상선권 확대하라.

임핑 나이나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동1C 구간 광복동원드 관동
- (명동출발)1C 구간 광주 동원드 관동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dashy.co.kr 0801 320-7700

이젠 '김연아 천하'

피겨 그랑프리 1차 대회 21점 차 압도적 우승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2008~2009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에서 시즌 첫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27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 컴캐스트 아레나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3.95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69.50점) 점수를 합쳐 총점 193.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김연아는 지난 2006년 그랑프리 4차 대회(에릭 봉파르)를 시작으로 지난해 차이나컵(3차 대회)과 러시아컵(5차 대회)을 합쳐 그랑프리 시리즈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비록 자신의 역대 최고점(197.20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2위 나가노 유키리(일본·172.53점)와 점수 차가 무려 20.92점이나 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다.

붉은색에 금박 장식을 단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배경 음악 ‘세헤라자데’에 맞춰 아라비아 공주로 변신한 김연아는 첫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을 완벽하게 소화했지만 연이은 트리플 투프를 실수로 뛰면서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심장’ 김연아는 곧이어 트리플 러츠에 더블 토루프와 더블 투프를 연결한 콤비네이션 점프로 깨끗하게 성공해 큰 박수를 받았고,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러츠, 트리플 살코, 더블 악셀 등 나머지 점프 과제도 완벽하게 처리해 가산점을 받았다.

김연아는 플라잉 시스핀과 플라잉 콤비네이션 스프에서 살짝 흔들리며 감점을 받아 아쉽게 레벨 3으로 처리됐지만 장기간 아름다운 스카이트ิล 시스핀과 마지막 콤비네이션 점프를 레벨 4로 마무리하면서 ‘피겨퀸’의 참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나가노는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시도하려다 더블로 마쳤지만 안정된 점프와 깔끔한 연기로 실수없이 경기를 마쳐 총점 172.5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전날 스텝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던 ‘라이벌’ 안도 미키(일본)는 공연했던 쿼드러플 살코(공중 4회전) 도전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콤비네이션 점프를 앞세워 168.42점을 따내 3위에 올랐다.

한편 김연아는 28일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톤토로 복귀, 다음달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 출전을 위한 훈련에 들어간다. 김연아는 3차 대회에서 안도와 또 한 번 대결을 펼친다.



김연아가 2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의 컴캐스트 아레나에서 벌어진 '2008 스케이팅 아메리카' 대회 여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열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 스케이팅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한 김연아(왼쪽)와 3위를 차지한 안도 미키(일본).

김연아의 완벽한 ‘삼위일체’

파워 도약 가볍고 회전력 더욱 강해져

정신 실수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

기술 깔끔하고 정확한 점프 콤비네이션

“힘과 우아함을 겸비한 연기였다”(AP통신). “여유가 있고 자신감도 넘쳤다”(아이스네트워크)

2008~2009 시즌 첫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에서 뛰어난 표현력과 정확한 점프를 앞세워 우승 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18·군포 수리고)의 연기를 지켜본 외신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총점 193.45점을 획득, 준우승을 차지한 나가노 유키리(일본·172.53점)보다 무려 20.92점이 많은 점수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시니어 무대 3년차를 맞는 김연아의 연기력과 기술도 절정에 이르고 있다. 점프의 도약은 가벼워졌고, 회전력은 더욱 강해졌다. 또 손끝의 표현과 몽환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시선 처리도 배경음악에 한껏 녹아들었다.

새 시즌을 맞으면서 팬들은 김연아의 기술 다변화에 주목을 많이 했다. 하지만 김연아는 정확한 기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프로그램을 완성

했다. 지난 시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기술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더욱 강렬해진 배경음악에 녹아드는 표현력과 더 정확해진 점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또 트리플-트리플 점프 콤비네이션 구사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확하다는 게 피겨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김연아가 구사한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은 이번 대회 참가자 가운데 유일하게 심판들로부터 감점을 받지 않았다.

피겨는 재빠른 상황 판단과 체력, 강한 정신력이 승부를 좌우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연아는 ‘강심장’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실수를 범하더라도 재빠르게 평정심을 찾고 다음 연기를 이끌어가는 재주가 탁월하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투프를 시도하다 실수로 처리해 당황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다섯 번의 점프를 정확한 예지를 앞세운 ‘교과서 점프’로 완성, 가볍게 우승 메달을 따냈다.

김연아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여자 싱글 최초로 총점 200점을 넘기는 것과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해 3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이정수 2관왕

ISU 월드컵 2차대회

남자 쇼트트랙의 기대주 이정수(단국대)가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정수는 27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끝난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29초688의 기록으로 캐나다의 미첼 길데이(1분29초842)를 여유 있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이정수는 전날 1,500m 우승에 이어 가볍게 2관왕에 올랐고, 함께 결승에 나선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는 1분31초903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남자 500m 결승에서는 이호석(경희대·41초321)이 프랑스와 루이 트렘블리(캐나다·41초823)를 0.502초 차로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 사냥에 힘을 보탤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계주 결승진출에 실패, 총 3개의 금메달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또 여자부에서는 전날 1,500m 동메달리스트 신새봄(광문고)이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30초907을 기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1승 남았다

탬파베이에 10-2 승

월드시리즈 4차전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8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정상 직책을 눈앞에 뒀다.

필라델피아는 27일(이하 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벅크 파크에서 계속된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주포 라이언 하워드(3점포 등 홈런 4방과 선발투수 조 블랜턴의 호투에 힘입어 탬파베이 레이스를 10-2로 대파하고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

1883년 필라델피아 케이커스라는 이름으로 창단돼 1890년 지금 팀 명으로 개칭한 내셔널리그 터줏대감 필리스는 강타자 마이크 슈미트를 앞세워

1980년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4승2패로 누르고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이후 28년 만에 두 번째 정상 등정 기회를 잡았다.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잘 던진 블랜턴(1승, 평균자책점 3.27)과 앤디 소넨스타인(2승, 평균자책점 3.46)의 선발 대결로 시작된 이날 경기에서 행운의 여신은 1회부터 필라델피아에 미소를 보였다.

톱타자 지미 롤린스의 우선수 2루타와 체이스 어틀리의 볼넷으로 잡은 1사 1,3루에서 하워드의 투수 앞 땅볼 때 사단이 일어났다. 소넨스타인은 공을 잡고 홈으로 쇄도하던 주자 롤린스를 잡기 위해 3루수와 협살을 시도했고 3루수 팀 웰크는 이 과정에서 롤린스가 롱고리아의 태그를 피해 3루에서 세이프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TV 판독결과 엄연한 오심이였다. 소넨스타인은 흔들렸고 후속 패 배럴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내보내 첫 실점했다.

3회 페드로 펠리스의 적시타로 1점을 보낸 필라델피아는 2-1이던 4회말 대세를 갈랐다.

펼쳐 반란'을 주도한 탬파베이는 결정적인 실책과 5안타 빈공에 묶여 비강에 몰렸다. 5차전은 28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거물 신인’ 하승진 보러 가자

2008~2009 프로농구 31일 개막

2008~2009 동부프로미 프로농구가 31일 원주 동부와 안양 KT&G의 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정규시즌은 팀당 54경기씩 6라운드로 내년 3월22일까지 이어지며 상위 6팀이 벌이는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이 끝난 뒤 일정이 확정된다.

이번 시즌의 특징은 ‘거물 신인’으로 요약된다. 221.6cm의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사진)이 미국프로농구(NBA) 생활을 접고 전주 KCC의 유니폼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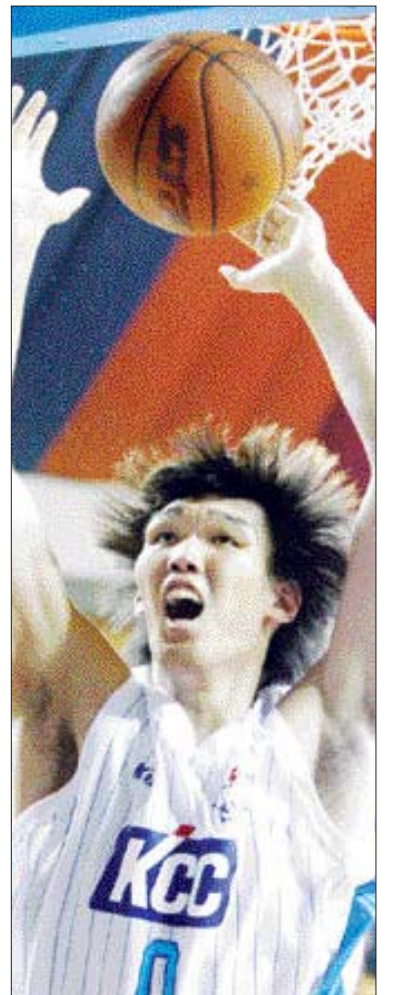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특급’ 김민수도 서울 SK에 동지를 틀고 높이와 스피드로 팀에 힘을 보탤다. 여가다 ‘제2의 김주상’을 꿈꾸는 윤호영(원주 동부), 대형 가드 강병현(인천 전자랜드)까지 가세해 신인 풍년을 이뤘다.

연봉킹 김주상을 보유한 작년 챔피언 동부가 윤호영까지 영입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꿈꾸고 있지만 국보급 센터 서장훈과 하승진으로 무장한 KCC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화제 팀이 됐다.

하지만 ‘가드없이 우승은 힘들다’며 풍부한 가드진을 앞세워 정상을 넘보는 팀들도 있다. 서울 삼성은 이상민과 이정서, 강혁 등 최강의 가드진을 갖췄다. 또한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개를 숙였던 국내 최고의 가드 대구 오리온스 김승현이 명예 회복을 베풀고 있다.

외국인 선수의 실력도 큰 변수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쳤던 울산 모비스는 벌써부터 다룬팀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는 브라이언 던스톤을 데려와 전력을 보강했고 SK는 지난 시즌 최우수외국인선수로 뽑힌 테렌스 새너를 영입했다.

한편 이번 시즌은 Xports, MBC-ESPN, SBS스포츠가 프로농구 모든 경기를 중계해 팬들은 안방에서도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페더러 시즌 네번째 우승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가 시즌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페더러는 27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다비도프 스위스 인더어(총상금 89만1천유로) 단식 결승에서 다비도 날반디안(8위·아르헨티나)을 2-0(6-3 6-4)으로 물리치고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IA 투수 조광훈 등 7명 방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7일 투수 조광훈 등 7명의 선수를 방출했다.

KIA는 이날 조광훈 외에 이인철(투수), 이준수(포수), 김준우, 이강서, 이상훈(이상 내야수), 김정수(외야수) 등과도 내년 시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